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상수[†] ·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 편견적 태도에 대한 내·외집단간 규범정보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실험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형식을 통해 내·외집단과 성 평등 및 차별 규범정보를 조작하였고, 160명의 남녀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연합 효과'에 의한 내현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중다회귀매개분석을 통해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집단 평등규범조건의 참여자들이 내집단 차별규범조건에서 보다 양성평등정책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내현적 태도에서,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내집단 평등조건에서 내집단 차별조건에서 보다 유의하게 낮은 성편견 반응을 보였다. 중다회귀매개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집단의 규범정보는 외집단 규범정보와 달리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변화시키는 매개과정을 거쳐 외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의 매개효과는 내현적 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의 방법론적 함의와 함께 편견 감소와 관련된 응용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규범정보, 내·외집단, 성편견, 양성평등정책, 인터넷, 내현적 태도, 내현적 연합검사

본 연구는 사회적 규범정보가 외현적 혹은 내현적 편견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편견을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규범 지각이 이들 태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떤 사회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를 규제하는 합의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집단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지각이나 편견의 바람직성과 가치에 대한 공유된 신념들 또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 규범을 이룬다. 이러한 규범

은 사회적 통제 기능으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규범은 흔히 집단을 통해 형성되지만 이러한 규범은 집단을 벗어난 상황에서조차도 개인의 지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 Sherif와 Sherif(1953)의 사회 규범이론에 따르면 편견적 태도 역시 다른 태도나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집단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의 신념체계는 대부분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집단이나 소수집단 사람들에 대

*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KRF-2002-074-HS1508)으로 이루어진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과정”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안상수(442-749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assoo@hotmail.com)

한 태도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습되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집단 규범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수 집단사람들에 대한 공유된 지각과 신념이 사회적 규범을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대부분의 정의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합의적 신념임을 가정한다는 데서도 잘 엿볼 수 있다 (Allen & Wilder, 1980; Ashmore & del Boca, 1976; Schaller & Conway, 1999; Tajfel, 1982).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소수집단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이나 동료, 그리고 여론과 같이 사회화과정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수집단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Hewstone & Brown, 1986; Hamilton & Gifford, 1976). 김혜숙(1988)은 우리나라의 지역편견 연구에서 부모세대가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 2세대인 대학생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전이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결과는 가정이 그 사회의 규범이 요구하는 가치기준을 학습시키는 사회화과정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편견뿐만 아니라 여타 소수집단의 대한 편견들 역시 집단규범의 전수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개인에게 미치는 규범이 이렇듯 영향력을 지닌 것이라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집단 규범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과거 버스나 기차와 같은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이 규범적으로 별 문제가 없던 것이 현재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금연규범이 사회적 규범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범의 통제적 영향은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소와 개선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즉, 동조연구나 사회적 비교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떤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나 표현을 부정적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정보로 작용할 것이며, 만약 자신의 태도가 이들 다수의 태도와 다르다고 지각되면 그 개인은 이들 다수가 가진 태도 쪽으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실 다수의 타인이 한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현상이다(Asch, 1952; Festinger, 1954; Sherif, 1936).

그러나 편견과 고정관념 분야에서 타인이 가진 신념 정보의 지각이 미치는 영향이나 자신과 타인이 편견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그 개인의 인지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Blanchard, Lilly, & Vaughan, 1991; Blanchard, Crandall, Brigham, & Vaughan, 1994; Haslam, Oakes, McGarty, Turner, Reynolds, & Eggins, 1996; Sechrist & Stangor, 2001). 편견과 고정관념이 집단규범의 결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편견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규범지각 또한 중요한 사회적 정보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태도변화 역시 가능한 추론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들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타인의 신념에 대한 지각을 조작하여 고정관념이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Crandall, Eshleman, & O'Brien, 2002; Stangor, Sechrist, & Jost, 2001).

Branchard, Crandall, Brigham, 및 Vaughan(1994)는 한명의 백인 실험동조자가 흑인에 대한 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말하는 규범영향조건과 참여자가 공적, 사적으로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상황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우호적 규범영향조건에서는 참여자의 인종차별적 태도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던 반면에, 비우호적 규범영향조건에서 인종차별적 태도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영향은 참여자가 사적으로 응답하는 조건에서까지도 나타났는데 이는 규범적 영향이 공적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수용에까지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Wittenbrink와 Henly(1996)는 현대적 인종차별주의 척도를 통해 실험참여자를 고편견자와 저편견자로 분류한 다음, 흑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다고 믿게 하거나 혹은 적다고 믿게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현대적 인종차별주의 척도를 실시한 결과, 고 편견자는 그 수가 적다고 믿은 고편견자는 흑인에 대해 호의적인 쪽으로 태도변화를 일으켰고, 많다

고 믿은 고편견자는 더 부정적인 쪽으로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저편견자에게서는 비율조작에 따른 태도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Stangor 등(2001)은 이와는 달리 내집단에 관한 합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고정관념적 신념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같은 대학의 동료 대학생들에 비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신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참여자들은 호의적인 쪽으로 흑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동료 대학생들에 비해 적은 고정관념을 가졌다고 믿도록 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흑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 또 이러한 태도 변화는 타 대학의 학생들에 관한 합의 정보보다 같은 대학의 학생들에 관한 합의 정보를 받았을 때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내집단의 합의 정보에 의한 태도 변화는 1주일 후의 과학적 근거를 내세운 새로운 설득적 정보제시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보에 의한 태도변화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규범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내집단 합의 정보의 영향이 더욱 강하고, 설득적 시도에 대한 저항도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론정보가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나은영(1995)의 연구는 비록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의 타인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아니었지만 본 연구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나은영(1995)은 내·외집단으로부터의 여론정보 제시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조작하고 태도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태도 질문지의 각 문항과 함께 제시되는 여론정보의 종류, 예컨대 '내집단 다수/일반인 소수 찬성', '내집단소수/ 일반인 다수 찬성'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단순 여론정보만으로도 태도변화가 일어났으며, 대학생의 경우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보다는 대학생 내집단의 지지가 대학생 피험자의 태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들에 따르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타인들에 의한 합의규범정보가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lanchard 등(1994)이 밝혔듯이 이런 합의규범정보는 공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규범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통제적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더욱 잘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나은영(1995)과 Stanger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의 규범이 외집단에 의한 규범이나 전체 사회규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집단 규범의 더 큰 영향력은 편견해소나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망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백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편견은 커다란 변화를 거쳐 왔다. 흑인에 대한 편견 변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사회 전반에 걸친 규범적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Smith, 1958; Case & Greeley, 1990). 비록 인종 평등주의적 규범으로 인해 흑인에 대한 차별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대체되긴 했어도 편견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Dovidio & Gaertner, 1991)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종간 평등을 지향하는 규범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특정지역,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탈 편견 지향적 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는 편견적 발언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내집단 규범이 따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공공연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randall, Eshleman, 및 O'Brien(2002)에 따르면 편견 및 고정관념의 정도는 그 사회의 규범이 편견 표현을 얼마나 허용한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으며, 규범적으로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편견반응은 더욱 높지만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편견반응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규범이 편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규범이 편견반응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파렴치범이나 유괴범에 대한 편견표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 허용하는데 비해 맹인이나 가정주부에 대한 편견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용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Crandall 등(2002)은 편견을 억제하려는 동기를 측정하는 내적 동기 억제척도(internal motivation scale : IMS)와 외적 동기 억제척도(external motivation scale : EMS)를 이용한 개인차를 측정하여 편견반응의 내적 동

기 억제자와 외적 동기 억제자를 비교하였다. 내적 동기 억제척도는 편견을 억제하려는 내면화된 자발적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외적 동기 억제척도는 외적 압력이나 기대에 동조하여 편견반응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를 개발한 Plant와 Devine(1997)에 따르면 내적 동기 억제자들이 외적 동기 억제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편견표현을 적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Crandall 등(2002)은 이러한 예언과는 달리, 내적 동기 억제자들이 외적 동기 억제자들에 비해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편견에 대해서 더 높은 편견표현을 나타냈고,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편견에 대해서는 더 낮은 편견표현을 보인다는 상반되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내적 동기 억제자들이 실상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보다 예민한 지각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편견적 태도의 표현이나 생각에 대한 통제가 사회규범이 편견을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 즉, 편견표현 규범 지각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은 첫째, 이 연구들이 백인의 경우와 같이 다수 집단의 편견적 태도만을 주로 다루고 있고, 또한 규범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 구성원들에게 비교적 명백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호남 갈등이나 남녀 관계처럼 어느 한쪽의 규범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규범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쪽 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내집단규범이 제시되었을 때와 외집단 규범이 제시되었을 때 어떤 편견표현 규범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둘째, Devine(1989)은 규범에 의한 통제가 주로 편견의 표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의식적 통제적 처리과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자동적 처리과정에서의 편견반응은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동적 과정은 의식적 통제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현적 자동반응은 규범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 효과가 고정관념 부인(negation)훈련을 통해 통제될 수 있으며(Kwakami, Dovidio, Moll, Hermesen, & Russin, 2000), 자동적 처리 조건에서 고정관념 일치기를 기대한 피험자는 고정관념 활성화를 나타냈

지만 고정관념 불일치를 기대한 피험자는 활성화를 억제시킬 수 있고(Blair & Banaji, 1996), 우리나라 지역 고정관념의 자동 활성화가 표적인물과의 협동 수행결과와 긍정성 여부에 따라 억제될 수 있다(안상수·최광선, 2001)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평등 지향적 규범과 차별 지향적 규범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 과연 규범에 의한 통제가 외현적 편견뿐만 아니라 자동적 처리 과정인 내현적 편견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여론정보의 분포를 제시하여 사회적 지지를 조작하거나(나은영, 1995), 타인들이 가진 합의규범정보를 통해 편견적 태도의 변화를 알아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연구는 동조실험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Branchard 등(1994)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실험참여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편견표현의 합의규범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자가 제시하는 합의 규범정보에 수동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인위적인 실험통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실체성의 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규범제시 방식의 인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접촉 상황은 아니지만 타인들이 가진 합의적 규범정보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인 인터넷 게시판의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소수 집단들과 접촉 기회도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다수와 소수집단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안티사이트, 엽기사이트, 자살사이트, 유명인의 팬 사이트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각종 단체나 신문사에서 개설된 홈페이지의 게시판들에서 지역이나 성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편견이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하는가 하면, 촛불미사나 노사모 등등 사실상 인터넷에서 제시된 규범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공간에서도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관한 표현규범의 통제적 기능이 여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편견

을 중심으로 평등주의적 태도 혹은 편견적 태도를 보이는 내집단 혹은 외집단 성원에 노출되는 것이 규범에 대한 정보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태도가 외현적으로 달라지는지 더 나아가 내현적으로도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 규범의 영향이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통해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관심사는 어디까지나 편견표현 통제에 관한 규범의 영향에 두고 있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중요 이슈들과 연관지어 보려는 목적으로 현재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성평등정책(affirmative action)의 문제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양성평등정책을 주요 소재로 삼게 된 이유는 우선 본 연구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규범상황을 조작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을 통해 평등지향이나 차별지향의 규범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접적인 특성(예컨대 이기심이나 수다스러움 등)을 다루기보다는 여성비울할당제나 여성채용목표제, 출산휴가제, 호주제폐지 등과 같은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간접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 등의 소수집단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는 사실이다(Gaertner & Dovidio, 1986; McConahay, 1986; Sears, 1988). 현대적 의미의 성차별주의는 비편견적인 자기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편견이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McConahay, 1986), 회피적이며(Gaertner & Dovidio),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반대나 보수성을 띠는 상징적인 표현(Sears, 1988) 형태로 대체되는 경향을 반영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내현적 자동적 편견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Branchard 등(1994)과 Stanger 등(2001)의 연구에서 합의 규범정보에 따른 태도변화가 사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매우 지속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태도 변화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 Greenwald, McGhee, 및 Schwarz(1998)가 제안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하여 내현적 자동적 성편

견 반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을 근거로 개발된 간접적 태도측정의 한 방법이다. IAT는 실제 태도와 표현된 행동 간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어떤 대상과 특성들 간의 자동적 연합의 강도를 측정한다. 예컨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부정적 특성과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인지적 접근 용이성이 더 높아 변별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이 훨씬 빨라진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들 두 대상에 대해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조합하여 변별판단을 시키면 연합의 강도의 차이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IAT 효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IAT 효과'는 편견연구에서 진정한 편견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나은영·권준모, 2002; 홍영오·이훈구, 2001;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ck, & Mellott, 2002;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성편견에 대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등지향적 규범과 차별지향적 규범이 있는 상황을 조작하여 이러한 규범의 영향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외현적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내현적 자동반응인 'IAT 효과'까지도 변화시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Crandall(2002)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제시되는 평등지지발언이나 차별지지발언이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쳐(즉, 매개되어) 성 편견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밝혀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 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양성평등정책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집단 내에서 편견표현이 더 허용되지 않는 규범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즉, 더 낮은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보일 것이다).
- 가설 3.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

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내현적 편견반응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편견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편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규범에 대한 지각(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을 통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5. 편견 규범정보가 내현적 편견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편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규범에 대한 지각(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을 통해 매개될 것이다.

방 법

실험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실험처치 후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내현적 편견반응인 암묵적 연합검사(Greenwald et al., 1998)를 통한 내현적 편견반응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전반부는 내·외집단의 평등규범조건과 차별규범조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를 검토해 보고 특히 내집단의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실험 후반부는 내·외집단의 평등규범조건과 차별규범조건에 따라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내현적 편견반응 즉, 'IAT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참여자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0명을 10개 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참여자의 성별분포는 남녀 각각 80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외현과제와 IAT과제의 두 실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60명 중 외현과제 실험에서는 실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1명을 제외한 159명이 참여하였고, 또한 IAT 과제 실험에서는 후속 실험에 참여해 달라는 실험자의 요청을 거부한 피험자 1명을 추가로 제외한 158명이 최종 참여자였다. 이들 158명 중 32명은 통제집단으로 남자 16명 여자 16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의 처치 없이 지필 종속측정치와 IAT 과제

만을 측정하는 남녀 각 1개 집단은 통제집단이었다. 그리고 실험집단은 2(집단: 내집단/외집단)×2(규범정보: 평등/차별)×2(성: 남/여)인 완전무선설계로서 각 조건별로 16명의 실험참여자가 배정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의 조작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 <http://my.netian.com/~sjw798>의 게시판을 이용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보게 될 게시판에 게시된 글 내용과 제목 그리고 실명의 이름을 이용하여 남성 다수와 여성다수 그리고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을 조작하였다. 여기서 게시자의 실명의 이름은 실험참여자의 성과 일치 여부에 따라 내집단 혹은 외집단을 결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실명의 이름들은 본 연구의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는 IAT과제를 위한 남·여 이름 자극어 선정에 위한 사전조사에서 자극어 이외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이름은 사전조사 참여자(n=40)에 의해 100% 남자인명으로 혹은 여자인명으로 분류된 것이다.

게시된 글의 제목과 내용은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을 조작하는 데 이용되었다. 즉 차별규범은 글 내용이나 제목이 여성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읽는 것이었고, 평등규범은 여성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지지하는 글 내용이나 제목을 읽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건은 게시판의 올려진 글이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글 내용의 다수가 동조하는 상황만을 설정하고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게시판 남성다수: 6개의 글 중 남성이 쓴 글이 5개(83%)이고, 여성이 쓴 글이 1개(17%)이며, 이들 중 다수에 동조하는 주장의 글이 5개(83%)이고 반대하는 글이 1개(17%)인 경우.

게시판 여성다수: 6개의 글 중 여성이 쓴 글이 5개(83%)이고, 남성이 쓴 글이 1개(17%)이며, 이들 중 다수에 동조하는 주장의 글이 5개(83%)이고 반대하는 글이 1개(17%)인 경우.

내·외집단 조작 실험 참여자가 읽는 실명제의 게시판이 자신과 같은 성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건이다. 즉, 남성 실험참여자¹ 게시판의 남성 다수의 글을 읽는다면 내집단조건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

다수의 글을 읽는다면 외집단조건이 된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다수의 게시판 글을 읽으면 내집단이고, 남성다수의 게시판을 읽으면 외집단이다.

규범정보 조작 규범정보는 평등규범 조건과 차별규범 조건으로 나뉜다. 평등규범 조건은 게시판에 올려진 글 중 다수가 여성채용목표제, 정치인 및 교수의 여성비율할당제, 호주제 폐지, 군복무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제도 폐지 등을 지지하는 평등 지향적 태도를 표명하는 글 내용을 읽는 조건이다. 차별규범 조건은 게시판에 올려진 글 중 다수가 이들 제도에 대해 반대하거나 편견적 태도를 표명하는 글 내용을 읽는 조건이다.

통제집단 독립변인 처리 없이 종속변인의 질문지에 응답하고 곧 바로 IAT과제를 실시하는 조건이다.

종속변인

실험집단의 경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과 관련된 질문지와 함께 1) 양성평등정책에 태도문항, 2)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 3)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조작확인에 관한 질문 등을 포함한 설문지였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는 “귀하는 여성고용비율할당제 도입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를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찬성한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편견표현이 허용되는 규범의 지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와 발언이 얼마나 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편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귀하는 다른 사람의 성편견적 태도와 발언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확인 규범정보의 조작 확인을 위해서 남성지지 글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여성지지 글이 비율이 얼마였는지를 물었다. 또한 내·외집단 조작확인은 남성이 쓴 글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여성이 쓴 글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외현과제 실험의 방법과 절차

실험도구

이 실험을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는 내·외집단 조작과 규범정보를 조작하기 위해 게시판의 글 내용을 정교하게 배치하였다. 게시된 글의 강도나 내용을 조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실험보조자가 글의 길이, 제목, 내용 등을 조건별로 적절히 안배하였다. 예컨대 제목이 특징적이면 다른 조건에서는 내용의 주장 강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었다(<http://my.netian.com/~sjw798>).

이렇게 선정된 글들은 6개의 게시판에 나누어 게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이들 중 4개의 게시판만 사용하였음). 이 홈페이지의 구성은 첫 화면에는 6개의 링크(link) 형식으로 빈 화면의 중앙에 세로로 나열하였고, 피험자가 직접 클릭(click)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화면은 “양성평등을 위한 대학생 연합”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여성부나 여성 관련단체가 링크된 것처럼 꾸며두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를 클릭 하시오” 누르면 곧바로 게시판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졌다.

세 번째 화면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작된 6개의 게시목록이 나타나 있으며, 사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몇 개는 답글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것 역시 조건별로 일치시켰다. 목록에는 번호, 제목, 게시자 실명과 학번이 나타나게 하였다. 게시자 실명은 내·외집단 조작을 위해 필요했다.

절 차

실험참여자가 도착하여 칸막이가 쳐진 컴퓨터에 앉을 때, Web page인 <http://my.netian.com/~sjw798>의 초기 화면인 Web Browser(Internet Explorer)로 미리 띄워져 있었다. 이 초기화면은 흰색 바탕화면에 6개의 링크가 화면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실험자는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어떻게 올리며 또 그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지정된 홈페이지로 들어가 잠시 첫 화면을 살펴보게 한 후,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한다. 게시판이 나타나면 실험자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6개의 글들을 천천히 모두 읽으시고 글 내용이나 게시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한 개의 글을 읽고 나서 반드시 목록으로 나오셔야 다음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록에 있는 제목글과 남녀의 구성을 여러 차례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 내·외 집단 조작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실험 참여자가 게시판의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실험실의 다른 탁자에서 질문지를 주고, 질문지 투입함에 직접 넣도록 부탁하였다. 이렇게 참여자가 응답이 모두 끝나서 투입함에 질문지를 넣고 나면, 실험자는 실험에 참여해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다.

이때 다른 실험자가 다가와 다른 간단한 실험이 하나 더 있으니 여기에도 참여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IAT과제 실험으로서 본 연구의 IAT 절차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IAT과제 실험의 방법과 절차

지금까지는 내·외집단의 규범정보의 영향에 관한 외현적 과제의 실험방법과 절차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의 영향이 내현적 자동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과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현적 반응인 IAT 효과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AT 실험절차를 실시하였다.

IAT 실험도구

IAT 프로그램은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여 Windows 용으로 C+ 프로그래밍으로 작성되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Windows가 갖은 시간측정(time check)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Precision time사의 <http://www.millisecond.com>에서 inquisit.exe를 참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1대의 컴퓨터만 사용하였다. 운영체제는 Windows 98이었다. Windows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기본프로그램만 사용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강제 종료한 상태에서 IAT과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Microsoft사의 Windows

가 시간을 제어하는 방식이 안정스럽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흔히 권장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 진행순서는 Greenwald와 Banaji의 IAT 홈페이지(<http://buster.cs.yale.edu/implicit>)의 형식을 참조하였으나 이 실험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실시되고 인터넷에 의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Greenwald, Noseck, 및 Banaji(2003)의 인터넷 실험과 이 실험에서 사용한 프로그램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Greenwald 등(1998)의 실험과 달리 본 실험 프로그램은 각 세션의 첫 시행에서는 반응시간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1000ms의 지연시간을 두고 시작되도록 하였다. 둘째, 오류반응이 있을 경우 Greenwald 등은 붉은색 “X”표시 나타나고 다시 정확한 반응을 하도록 하였으나, 본 실험에 상용한 프로그램에서는 붉은 색의 “X”표시의 피이드백 없이 곧바로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반응은 컴퓨터에 오류반응으로 기록되고 마찬가지로 시간도 기록되었다. 다만 각 세션이 시작되기 전, 이런 오류반응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지시문은 반응키의 방향을 숙지할 것과 반응속도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IAT 실험절차

IAT 실험의 이전 절차에서 실험자는 참여자에게 실험 종료와 함께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 이 때 다른 실험자가 다가와 “조금 전 끝난 실험과는 다른 실험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실험자는 “이것은 대학생의 단어인식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므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실험참여자가 이 요청에 동의하면 실험자는 IAT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컴퓨터로 안내하였다. 이전 실험에 참여했던 피험자 중 이 요청에 대부분은 따랐으나 1명만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요청을 거절했다. IAT용 컴퓨터는 이전 홈페이지 관련 실험이 이루어졌던 실험실의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용 칸막이로 둘러쳐 있었다. 실험자가 자리에 앉으면,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이 실험은 반응속도와 정확성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앉는 자세에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을

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실험참여자의 시선이 화면 중앙에 놓일 수 있도록 의자를 고쳐 앉게 도와 주고 화면과의 거리를 약 65cm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화면에 있는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보게 한 후, 실험절차에 대해 숙지했는지를 확인하고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IAT의 프로그램의 진행순서는 모두 140시행이었으며, 모두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세션은 과제유형과 할당된 컴퓨터 키보드의 반응키(Z-키, ?-키) 배열을 살펴보면, ① 표적 범주 변별연습, 20시행(여성 이름-Z : 남성이름-?), ② 특성 범주 변별연습, 20시행(불쾌단어-Z : 유쾌단어-?), ③ 앞서 1단계의 표적 범주와 2 단계의 특성 범주를 조합한 변별검사, 40시행(여성이름 및 불쾌단어-Z : 남성이름 및 유쾌단어-?), ④ 1 단계 표적 범주의 반응키를 바꾼 표적 범주 변별연습, 20시행(여성이름-? : 남성이름-Z), ⑤ 앞서 4단계와 2 단계를 조합한 변별검사, 40시행(여성이름 및 유쾌단어-? : 남성이름 및 유쾌단어-Z) 등 모두 140시행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암묵연합과제의 진행순서와 항목과 반응키 배열

시행	목 적	항목.왼쪽 키(Z)	항목.오른쪽 키(?)
1 20	표적변별	여성이름	남성이름
2 20	특성변별	불쾌단어	유쾌단어
3 40	검사(상용)	여성이름+불쾌단어	남성이름+유쾌단어
4 20	표적 역변별	남성이름	여성이름
5 40	검사(비상용)	남성이름+불쾌단어	여성이름+유쾌단어

‘IAT 효과’는 자동적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두 개의 범주과제에서의 수행속도 차이로 계산된다. 즉,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비상용과제(incompatible task)에서 상용과제(compatible task)의 반응시간을 뺀 차이값을 의미한다. IAT 효과의 점수가 클수록 특정 범주와 부정적 특성이 더 잘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정 대상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거나 또는 높은 편견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비상용과제는 사람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집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긍정적 특성과 연합강도가 낮고, 다수 집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부정적 특성과 연합강도가 낮을

것이므로 두 범주 집단 모두에 대해 자동적 연합강도가 낮아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과제인 것이다. 우리 실험의 남성참여자들의 경우 5단계를 비상용과제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상용과제는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특성과 연합강도가 높고 다수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특성과 연합강도가 높을 것이므로, 두 범주 모두 자동적 연합강도가 높아 반응시간이 빨라지는 과제이다. 우리 실험의 남성참여자들의 경우 3단계를 상용과제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실험참여자가 남성이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상용과제(남성이름-불쾌단어와 여성이름-유쾌단어가 조합된 검사)인 5단계가 3단계의 상용과제(남성이름-유쾌단어와 여성이름-불쾌단어가 조합된 검사)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릴 것이다. 반면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은 남성이라면 5단계와 3단계의 과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혹은 특정 상황에 의해 자동적 연합의 활성화나 접근용이성이 영향을 받는다면 5단계가 더 빨라지고 3 단계가 느려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여성 참여자가 남성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비상용과제(남성이름-유쾌단어와 여성이름-불쾌단어가 조합된 검사)인 5단계가 3단계의 상용과제(남성이름-불쾌단어와 여성이름-유쾌단어가 조합된 검사)보다 더 느릴 것이다. 반면에 남성에 대한 편견이 적은 여성이라면 5단계와 3단계 과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독립변인의 처치가 가해진 실험집단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IAT 효과(비상용과제에서의 반응시간-상용과제에서의 반응시간)에서 통제집단의 IAT 효과(비상용과제-상용과제)를 뺀 차이값 즉, IAT 편견차이점수를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그 이유는 내·외집단에서의 규범조작이 IAT효과 즉 자동적 내현 편견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 주관심사였기 때문 통제집단의 IAT 효과를 배제한 실험처치 효과만을 비교하였다.

결 과

외현과제 실험 분석결과

결과 분석은 실험집단의 127명과 통제집단의 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피험자1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는

게시판에 답 글을 쓰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실험조작 자체가 어려웠다. 조작확인 분석 이후, 분석자료로 사용한 종속측정치들은 실험집단의 개인별 평균값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모든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이 점수들은 실험의 처치효과에 따른 차이로 간주하였다.

조작효과 분석

우선 규범정보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을 묻는 질문과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을 물었다. 이 질문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물은 것이므로 6개의 글 중에 나머지 한쪽 비율의 응답은 다른 한쪽의 비율에 관한 응답이 결정된다. 즉 평등규범 조건에서는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이 많았다고 판단해야하고 반대로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이 적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차별규범조건에서는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이 적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여성지지 글의 비율판단만을 분석하였다. 여성지지 글에 대한 비율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하면 규범정보에서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19)=537.41, p<.001$. 평등규범조건의 평균 79.41($SD=11.69$)이었고, 차별규범조건의 평균은 27.38($SD=13.41$)이었다.

또한 내집단과 외집단을 조작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여성이 쓴 글의 비율과 남성이 쓴 글의 비율을 판단하게 하는 질문을 하였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의 조작은 게시판의 글 쓴 사람의 다수가 참여자 자신과 같은 성이면 내집단이고 자신과 다른 성이면 외집단으로 조작하였다. 따라서 참여자가 여성일 경우, 내집단이 제대로 조작되었다면 “게시된 글 중 여성이 쓴 글은 몇 퍼센트입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의 비율을 더 높게 판단해야 한다. 이 때 여성 참여자에게 외집단이 제대로 조작되었다면, 남성 다수의 게시판을 읽는 경우이므로 이 질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낮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게시된 글 중 남성이 쓴 글은 몇 퍼센트입니까?”라는 질문은 정확히 정반대의 비율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게시된 글 중 여성이 쓴 글은 몇 퍼센트입니까?”라는 질문만을 분석하여도 남성과 여성 참여자에게

내집단과 외집단이 조작되었는지 확인이 되는 셈이다.

여성이 쓴 글에 대한 비율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집단(내집단/외집단)과 성(남/녀)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9)=468.81, p<.001$. 이것은 내·외 집단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확인을 한 결과는 두 개의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편견점수의 차이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인으로 군가산점제도 폐지, 여성비율할당제도 도입,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정도를 평균하였다. 이 평균값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조건별 편견적 태도의 차이점수를 얻기 위해 통제집단의 태도 점수를 먼저 구하였다. 통제집단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얻은 결과, 표 2와 같았다.

표 2. 통제집단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참여자 성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남 성	3.19	.85	16
여 성	3.83	.53	16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통제집단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성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0)=-2.57, p<.05$. 즉, 남성의 평균 3.19($SD=.85$)이고 여성의 평균이 3.83($SD=.5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더 호의적이었다.

실험집단의 각 실험 참여자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편견점수에서 통제집단의 점수를 뺀 차이값을 얻은 후, 이를 2(집단 :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차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규범정보에서 주효과가

표 3. 조건별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차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유 형			
	내 집 단		외 집 단	
참여자 성	평 등	차 별	평 등	차 별
남 성	.37(.51)	-.25(.68)	.25(.53)	-.40(.61)
여 성	.13(.62)	-.48(.54)	.05(.49)	.01(.78)

()안은 표준편차임

유의하였다, $F(1, 119)=10.95, p<.001$. 즉 평등규범조건의 평균이 .07($SD=.57$)이었고, 차별규범조건의 평균은 -.28($SD=.66$)이었다. 이것은 평등규범조건이 통제집단에 비해 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나타내 낮은 편견을 보인 반면에 차별규범조건은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나타내 높은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단(내집단/외집단)과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F(1, 119)=6.13, p<.05$, 집단(내집단/외집단)과 성(남성/여성)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9)=7.69, p<.01$.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과 규범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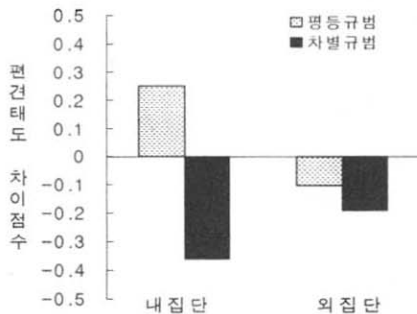


그림 1.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편견태도 차이점수의 집단 및 규범 간의 상호작용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119)=16.73, p<.001$. 즉,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 상황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더 호의적인 쪽으로 .25($SD=.57$)의 태도를 나타내 낮은 편견을 보인 반면에, 차별규범 상황에서는 비호의적인 쪽으로 -.36($SD=.61$)의 태도를 나타내

높은 편견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내집단의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의 영향이 뚜렷이 다르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이 결과는 내집단 평등규범조건이 편견감소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차별규범조건은 편견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평등규범 조건의 경우 내·외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119)=5.54, p<.05$. 즉, 실험 참여자들은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하였을 때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비해 .25($SD=.57$), 외집단은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0($SD=.52$).

이들 결과들은 종합해 보면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 즉,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양성평등정책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고, 내집단의 규범정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집단(내집단/외집단)과 참여자 성(남성/여성)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남성조건에서 내·외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119)=6.5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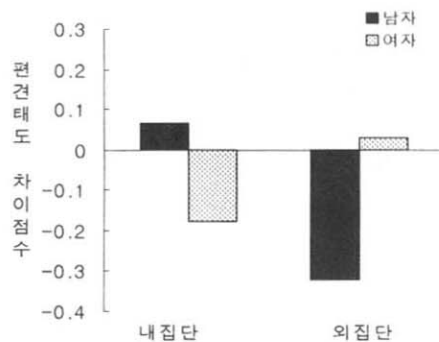


그림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편견태도 차이점수의 집단 및 성간의 상호작용

남성의 경우 내·외집단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집단 조건의 평균 .06($SD=.67$)이 다소 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나타냈는데 비해 외집단조건 -.33($SD=.57$)에서는 부정

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보여 오히려 높은 편견을 나타냈다. 또한 외집단조건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19)=5.39, p<.05$. 남성의 경우 편견태도 차이점수는 평균 $-.33(SD=.57)$ 이었고 여성은 편견태도 차이점수가 평균 $.03(SD=.63)$ 이었다. 한편 내집단 조건에서 남녀간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19)=2.56, ns$.

위의 결과들을 좀더 검토해 보면 남성들의 경우 외집단 즉, 여성들의 규범적 영향도 남성의 편견적 태도에 작용할 것인데 특히, 남성과 여성이 갖는 관계의 양가적 성질 때문에 규범의 영향이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Glick & Fiske, 1996). 외집단인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여성 스스로가 여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남성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외집단 차별규범조건일 때는 외집단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 차별규범에서 남성들이 비호의적 쪽으로 편견태도를 나타냈을 것으로 해석된다(표 3 참조).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

각 조건별로 평등지향적, 차별지향적 규범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분석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각 피험자의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점수를 뺀 차이값을 지각변화량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여기서 차이값이 양수(+)이면 통제집단보다 더 편견표현이 허용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는 통제집단보다 편견표현이 덜 허용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의 차이값에 대해 2(집단: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남성, 여성)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량분석에서 나온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하였다.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차이값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범정보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119)=11.41, p<.001$. 그러나 기대했던

표 4. 조건별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 차이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유 형			
	내 집 단		외 집 단	
참여자 성	평 등	차 별	평 등	차 별
남 성	-.185(.957)	.252(.655)	-.123(.727)	.190(.683)
여 성	-.377(.727)	.185(.718)	-.252(.704)	.193(.640)

()안은 표준편차임

집단(내/외집단)과 규범정보(평등/차별)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19)=.215, ns$. 또한 집단 및 성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규범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등규범조건인 평균이 $-.23(SD=.77)$ 이었으며, 차별규범조건인 평균이 $.21(SD=.66)$ 이었다. 즉, 평등규범을 접하였던 실험참여자들은 편견표현이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차별규범조건인 실험참여자들은 편견이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편견표현 허용규범을 더 낮게 지각할 것이다.”를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Crandall(2002)이 지적하였듯이 편견표현의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 편견의 통제적 영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좀 더 분명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내집단의 평등 지향적 태도표명에 접하는 것이 편견표현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별 각 참여자들의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을 뺀 차이값을 평가변화량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서 차이값이 양수(+)이면 편견표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이면 편견표현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집단: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남성, 여성)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규범정보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19)=4.63, p<.05$. 그리고 집단과 참여자 성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9)=10.00, p<.05$. 또한 참여자 성에 대해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119)=6.81, p<.05$. 표 5는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차이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5. 조건별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차이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유 형			
	내 집 단		외 집 단	
	평 등	차 별	평 등	차 별
남 성	.189(.678)	-.188(.892)	.375(.500)	.438(.655)
여 성	.190(.516)	-.060(.577)	-.435(.806)	-.110(.561)

()안은 표준편차임

관심을 둔 집단과 규범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내집단에서 평등규범 조건과 차별규범조건간에 차이 경향성이 나타났다, $F(1, 119)=3.53, p<.06$. 즉, 평등규범에서 평균이 .19($SD=.59$)였고 차별규범에서 -.12($SD=.74$)였다. 이 결과는 내집단 조건에서 규범정보에 따라 편견표현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내집단이 평등규범이면 편견표현을 더 부정적 평가로 바뀌고, 차별규범이면 편견표현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

지금까지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범정보가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나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과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여성에 대한 편견에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변인 분석 방법인 단계적 중다회귀매개분석을 적용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mediator)이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1) 예언변인(predictor)이 매개변인에 대해 유의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3) 예언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예언변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혹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고재홍·지영단, 2002; Kenny, 2001). 이때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인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본다. 대개 완벽한 매개효과를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며, Sobel(1982)은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1)을 통해 부분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다회귀매개분석(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을 통하여 규범정보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점수 사이에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과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예언변인(predictor)은 집단규범정보로 하였고, 매개변인(mediator)은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 그리고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차이값이었고, 종속변인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수였다.

매개효과를 집단별로 구체화 시켜 알아보기 위해 분석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제시한 β 값은 모두 표준화된 계수이다.

그림 3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매개효과에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매개변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Sobel(1982)의 공식을 적용하여 각 매개변인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내집단에서 편견표현의 허용규범지각이 예언변인인 규범정보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간의 부분 매개효과(Sobel, 198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35, p<.05$. 반면에 외집단에서는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편견표현 허용에 대한 지각의 매개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예언변인인 규범정보는 매개변인인 편

1) Sobel(1982)의 공식 :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0보다 큰 지를 Z-검증을 통해 알아보는 공식이다. 회귀분석에서 예언변인과 종속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1 , b_2 와 표준오차 Se_1 , Se_2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매개효과 검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

$$Z = \frac{b_1 \times b_2}{\sqrt{b_1^2 \times Se_2^2 + b_2^2 \times Se_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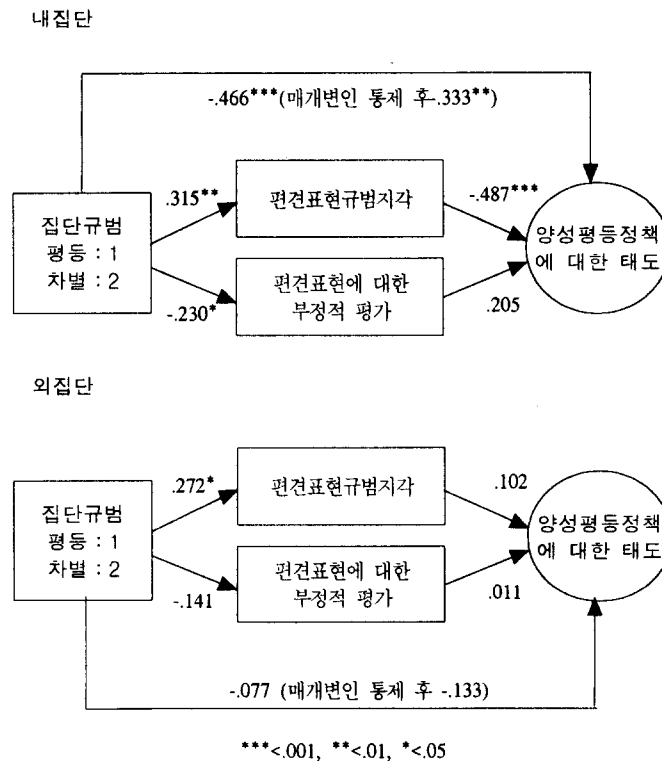


그림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편견태도점수의 중다 회귀매개분석 결과

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15$, $p < .01$. 이는 차별규범일수록 즉, 편견표현이 많을수록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은 양성평등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예언하였다, $\beta = -.487$, $p < .001$. 이것은 편견표현 허용에 대한 규범지각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정책에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규범정보는 종속변인인 양성평등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66$, $p < .001$. 매개변인 통제 후는 $\beta = -.333$, $p < .01$ 이었다. 이것은 편견표현이 차별적일수록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비록 완전 매개모형의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Sobel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가 내집단에서는 나타났지만 외집단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편견표현허용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내집단과 외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집단에서만 이러한 지각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던 본 연구의 기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4 즉, “편견규범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를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우선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여 완전 매개효과모형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부분 매개한 Sobel의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Z = 1.73$, $p < .10$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하게 나타난 예언을 살펴보면 규범정보가 높아질수록 즉, 차별적일수록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beta = -.230$, $p < .05$.

IAT과제 실험 분석결과

IAT 자극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남성 및 여성이름 선정. IAT 절차에서 사용할 자극어인 남성이름과 여성이름을 선정하기 위하여 5명의 대학원생(남2, 여3)에게 121명의 명단이 기록된 출석부를 보고 남녀를 변별하도록 하였고 5명 전원이 남성이름과 여성이름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인 95개의 이름 중 성씨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로 남녀 각 30개씩 모두 60개의 명단을 표집한 다음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전조사 피험자 40명에게 남자명단과 여자명단이 다른 페이지에 배치한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정도와 친숙한 정도를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표성은 “다음 각 명단을 보고 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물었고, 친숙성은 “다음 각 명단을 보고 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보고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40명의 사전조사 피험자들에게 60개 명단을 제시하고, 각 이름이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정도와 친숙한 정도를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여 선정한 남녀 각 10개 이름에 대해 평균을 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남성이름에 비해 여성이름들에 대해서 친숙성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친숙성에 따른 차이를 줄이기 위해 평균 4~4.5 점 사이의 이름을 실험 자극어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IAT의 자극어로 선정된 남녀 각 10개 이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선정된 남성·여성이름의 대표성과 친숙성(n=40)

	대 표 성	친 숙 성
남성이름	5.11 (1.20)	4.25 (1.15)
여성이름	5.27 (1.17)	4.33 (1.16)

()안은 표준편차임

선정된 남성이름의 대표성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15($SD=1.20$)이며, 여성이름의 대표성 평균은 5.23($SD=1.17$)이다. 남성이름과 여성이름간에는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 $t(39)=-.73$, ns . 또한 친숙성은 남성이름의 경우 평균 4.26 ($SD=1.15$)이었으며, 여성이름의 경우 평균 4.30($SD=1.16$)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9)=-.51$, ns .

남성 및 여성이름 각 10개에 대한 대표성과 친숙성 각각에 대해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들 남녀 이름들을 IAT의 자극어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쾌·불쾌단어 선정. IAT에 사용할 유쾌단어와 불쾌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명사나 형용사를 중심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각 10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적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누어 준 A4용지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토대로 대학원생 5명이 글자 수가 많은 응답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 수 있도록 2~3개의 명사나 형용사 단어로 수정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이들 단어의 빈도를 구한 다음 응답빈도가 5회 이상인 유쾌단어 30개와 불쾌단어 30개씩 모두 60개를 얻었다. 이를 다시 사전조사 피험자인 아주대학교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방법은 각 단어가 각 단어가 불쾌단어인지 유쾌단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단어가 유쾌함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한 친숙성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최초 단어 선정과정에서 5회 이상의 빈도를 가진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 7은 선정된 유쾌단어와 불쾌단어들의 유쾌·불쾌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유쾌정도는 6.03($SD=1.06$)이었고, 불쾌단어의 경우 평균은 6.01($SD=1.14$)이었다. 그리고 표 7의 불쾌단어와 유쾌단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단어를 배제하기 위해 평균 5.00~6.50 사이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유쾌단어인지 불쾌단어인지를 판단한 자료에서 사전조사 피험자 100% 일치하는 단어들만 선정하여 IAT의 자극어로 사용하였다.

표 7. IAT 유쾌·불쾌 자극어로 사용된 단어의 평균(n=34)

유 쾌 단 어		불 쾌 단 어	
햇살	6.24(0.71)	저주	6.50(1.11)
소풍	6.18(1.14)	타락한	6.41(1.23)
해돋이	6.18(1.11)	배신	6.13(0.96)
하이킹	6.11(1.20)	비웃음	6.10(1.00)
여행	6.02(0.95)	송충이	6.10(1.34)
무지개	6.02(0.94)	소음	5.97(1.13)
새벽	5.95(1.06)	오해	5.88(1.09)
운동회	5.89(1.19)	고민	5.80(1.23)
친절	5.88(1.23)	지겨움	5.69(0.99)
시원한	5.79(1.02)	더러움	5.52(1.33)

주) 7점척도 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IAT과제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 자료는 피험자 당 80개의 반응시간을 토대로 하였다. 즉, 3단계 40시행과 5단계 40시행의 반응시간이다. 전체 실험 참여자 160명 중 홈페이지 관련 실험에서 제외된 1명과 후속 IAT과제 실험에 참여요청을 거부한 4을 제외한 155명의 자료 12,400개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에 대해 참여자별로 오반응율을 검토한 결과 오반응률이 15%(12개) 이상인 피험자 1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제외된 실험참여자 중 3명은 통제집단(남자 2명, 여자 1명)이었고, 실험집단은 1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오반응율은 25% 였다. 따라서 실험집단 116명과 통제집단 29명이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피험자별 극단값의 처리는 Greewald 등(2003)의 방법을 따랐다. 이들 300ms 미만인 반응시간은 300ms로 대체하였고, 3000ms 이상인 반응시간은 3000ms로 대체하였다.

통제집단의 IAT효과

우선 통제집단의 각 14명과 15명에 대한 자료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의 자료는 남성집단 경우 5단계를 비상응과제(남자이름-불쾌단어와 여자이름-유쾌단어에 대한 조합 변별 검사)로 하였고 3단계를 상응과제(남자이름-유쾌단어와 여자이름-불쾌단어)로 하였다. 반대로 여성집단의 경우 3단계를 비상응과제(여자이름-불쾌단어와 남자이름-유쾌단어에 대한 조합 변별 검사)로 하였고, 5단계를 상응과제(여자이름-유쾌단어와 남자

이름-불쾌단어에 대한 조합 변별 검사)로 하였다.

이렇게 남녀 개인별로 얻은 비상응과제의 평균반응시간에서 상응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값을 개인별 IAT효과점수로 하였다. 즉, 여기서는 IAT효과점수가 개인별 성 편견점수라고 보았다. 표 8은 IAT 효과점수에서 남녀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8. IAT 효과점수에 대한 남녀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 ms)

	평균(M)	표준편차(SD)	사례수(N)
남 성	14.04	26.71	14
여 성	7.16	22.89	15

남성통제집단과 여성통제집단간의 IAT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남성 통제집단이 평균 14.04(SD=26.71)이었고, 여성 통제집단이 평균 7.16(SD=22.89)이었으나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27)=0.747$, $p=0.462$. 이후 분석에서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에 대한 분석은 통제집단의 각 남녀별 IAT효과와 평균치를 실험집단의 남녀별 IAT효과를 뺀 차이값을 사용하였다²⁾.

실험집단의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 분석

먼저 실험집단의 IAT효과점수에서 통제집단의 IAT효과점수를 뺀 차이값으로써 이것을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로 삼았다.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에 대한 분석에서 양수(+)의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편견을 의미하고 음수(-) 점수는 더 낮은 편견을 의미하는 것이다.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집단 : 내집단, 외집단)×2(규범정보 : 평등규범, 차별규범)×2(성 : 남성, 여성)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의 평균을 집단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표 9와 같다.

2) 남자 참여자의 경우의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

실험집단의 IAT 효과 $\{[(mn-fp)-(mp-fn)]/2\}$ - 통제집단의 IAT 효과 $\{[(mn-fp)-(mp-fn)]/2\}$

여성 참여자의 경우의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

실험집단의 IAT 효과 $\{[(mp-fn)-(mn-fp)]/2\}$ - 통제집단의 IAT 효과 $\{[(mp-fn)-(mn-fp)]/2\}$

주 : m(남성이름), f(여성이름), p(유쾌단어), n(부정단어) 임

표 9.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에 대한 집단, 규범정보, 성의 조건별 평균, 표준편차(ms)

집단	규범	성	평균	n	표준편차
내집단	평 등	남성	-13.26	14	27.80
		여성	2.50	14	24.63
	차 별	남성	17.19	15	31.37
		여성	4.41	16	27.60
외집단	평 등	남성	4.25	14	18.26
		여성	-4.90	14	23.36
	차 별	남성	2.27	15	21.53
		여성	3.71	14	29.03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선 규범정보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108)=4.12, p<.05$. 그리고 집단, 규범정보 그리고 성간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108)=4.15, p<.05$. 우선 규범정보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평등지향적 규범정보의 평균은 $-2.85(SD=24.14)$ 이고, 차별지향적 규범정보의 평균은 $6.91(SD=27.56)$ 이었다. 이는 규범정보의 영향이 내현적 편견반응에 까지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집단, 규범정보 그리고 성간의 3원 상호작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조건에서 집단과 규범정보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08)=5.71, p<.05$. 또한 내집단조건에서 규범정보와 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08)=4.4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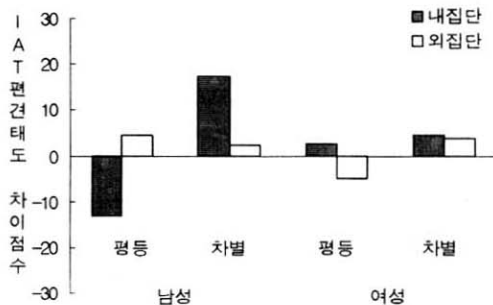


그림 4.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에 대한 집단·규범정보·성별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온 단순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건별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집단과 규범정보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남성조건에서의 규범정보와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집단, 남성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의 IAT 편견차이점수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9)=3.17, p<.01$.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내집단 남성조건에서 평등규범의 평균은 $-13.26(SD=27.80)$ 으로 더 낮은 내현적 편견반응을 보여 주고 있고, 내집단, 남성조건에서의 차별규범조건에서는 평균 $17.19(SD=31.37)$ 로 오히려 더 높은 내현적 편견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성들의 경우 내집단이 차별적인 규범을 보일 때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특성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증가하지만 평등지향적 규범정보가 중요해 지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3 즉,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내현적 편견반응을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남성, 평등조건에서 내·외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내집단의 평균은 $-13.26(SD=27.80)$ 인 반면에 외집단의 평균은 $4.25(SD=18.26)$ 으로 두 조건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t(26)=1.82, p<.07$. 그러나 나머지 조건들간에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IAT효과에 의한 내현적 IAT 편견차이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의 가설 3 즉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내현적 편견반응을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규범정보 즉 사람들의 평등적 표명과 차별적 표명을 접하는 것이 내현적 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내현적 IAT 편견차이점수에 대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분석. 이 분석의 목적은 내·외집단의 규범정보와 IAT과제에서의 내현적 편견반응의 차이점수 사이에 편견표현규범 허용에 대한 지각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 차이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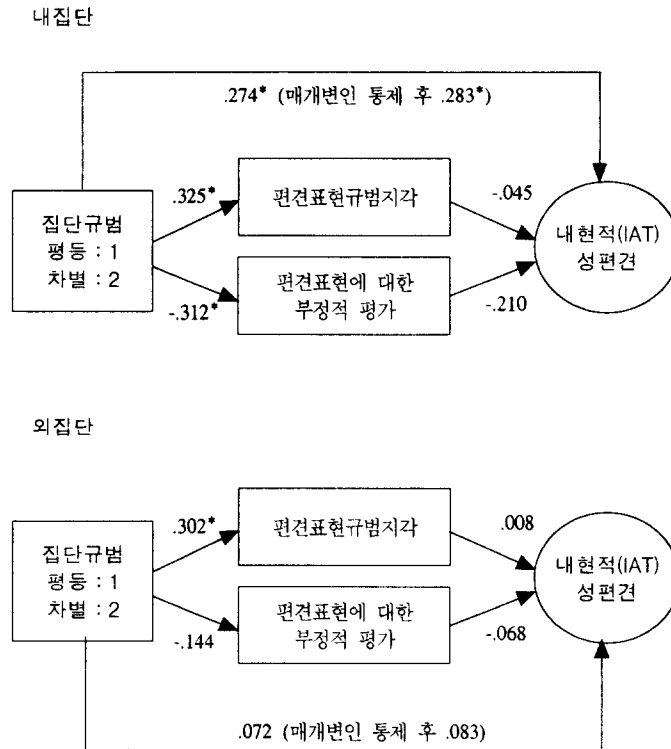


그림 5. IAT 편견태도 차이점수에 대한 중다 회귀매개분석 결과

에 관한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리하여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중다회귀매개분석 방법을 따라 예언변인을 규범정보로 삼고, 종속변인을 IAT효과에서 구한 내현적 편견반응의 차이점수로 했을 때,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과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은 도식을 얻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들 매개변인 중에 기준에 부합되는 매개효과를 것은 나타난 것은 없었다. Sobel 검증방법에 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나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부분매개효과 경향을 나타내긴 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다.

매개변인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시사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내집단 조건에서 예언변인인 규범정보만이 내현적 성편견반응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74$, $p<.05$. 이는 규범정보가

차별 지향적일수록 내현적 성편견반응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짐작될 수 있는 것은 규범정보의 통제적 기능이 적어도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외현적으로든, 내현적으로든 매우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추후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 의

본 연구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사회적 규범, 특히 내집단의 규범이 갖는 통제적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편견을 중심으로 내·외집단의 평등지향적 규범과 차별지향적 규범 정보를 조작하였고, 이것이 외현적 성편견 태도와 내현적 성편견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외현적 성편견 태도와 내현적 성편견반응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에 편견표현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범지각과 편견표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내집단 평등규범 정보를 접한 사람은 내집단 차별규범 정보를 접한 사람보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외집단 평등규범 정보를 접한 조건과 외집단 차별규범 정보를 접한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들에 비해서 집단에서의 편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규범지각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규범정보를 접한 참여자는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규범을 낮게 지각하였는데 비해서, 차별규범정보를 접한 참여자는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규범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집단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외현과제에서 뿐만 아니라 Greenwald 등(1998)이 제안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를 사용해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즉,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했던 참여자들은 통제집단의 'IAT효과'의 차이값으로 얻은 내현적 편견반응 점수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집단 차별규범을 접한 참여자들은 내현적 편견반응 점수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은 내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 내집단 규범정보와 내현적 편견반응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이 내집단 규범조건에서만 차이가 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집단에 상관없이 규범 조작의 주효과를 보임으로써 가설의 일부만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일관성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들, 특히 내집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적 태도표현이나 평등적 태도표현을 듣거나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가능성을 밝힌 Branchard 등(1991), Sechrist 등(2001), Wittenbrink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규범이론(Sherif et al., 1953)의 설명에 따르면 편견적 태도는 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집단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의 신념 체계는 대부분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동조연구나 사회적 비교이론을 통해서도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고정관념적 반응이나 편견적 표현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표현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가 한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는 동조연구나 태도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비교적 잘 알려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변화와 관련지어 연구된 것은 비교적 드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구나 그 중 대다수 연구들은 인종차별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정보의 영향이 성편견이나 차별과 연관하여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내집단 규범정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내현적 편견반응에서도 매우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내집단 평등규범조건에서는 편견반응을 더 낮게도 하지만 차별규범조건에서는 편견반응을 더 높게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회 정체감 이론(Tajfel et al., 1986)이나 사회적 범주화 이론(Turner, et al., 1987)의 가정과 잘 부합된다. 본 연구의 조작 상황이 양성평등정책과 같은 남녀간의 비교적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자기개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내집단이 현출해지는 상황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태도나 태도변화가 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태도변화에서 내집단의 영향을 밝힌 나은영(1995)의 연구와 인종편견의 변화에서 내집단의 영향을 밝힌 Stangor 등(2001)과 일치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다수집단

의 규범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남녀문제나 영호남 지역과 같이 우열을 말하기 어려운 집단의 규범적 영향에도 관심을 가졌다. 즉, 기존 연구가 비교적 규범 체계가 잘 정립된 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규범의 역할이 명백하게 지각될 수 있겠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사회규범과 내집단규범간의 규범적 영향의 괴리현상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내집단의 규범적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발휘된다기보다는 집단유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편견과 고정관념의 유지 혹은 해소라는 의미에서 내집단 규범이 차지하는 의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AT과제를 이용한 내현적 편견반응의 측정을 통해 내·외집단의 규범정보가 내현적 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 결과 남자 대학생 참여자들의 경우 내집단 평등규범조건과 차별규범조건에서 내현적 편견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집단의 규범정보의 영향이 내현적 태도반응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AT과제는 실제 태도와 표현된 행동 간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된 간접적인 태도측정 방법이다(Greenwald, 1998). 특히 이 측정방법은 자동적 연합 강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실제 태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Devine(1989)에 따르면 자동적 처리과정은 의식적 통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현적 자동반응은 규범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Devine(1989)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규범정보의 영향에 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의해 제공된 합의 정보는 공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Branchard et al., 1991). 또한 Stangor, 등(2001)은 규범정보 제시에 의한 태도변화가 1주일 이후에 이루어진 설득적 시도에도 더 높은 저항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더구나 내집단의 규범은 그들 성원으로 하여금

내집단과 일치하는 쪽으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내집단 성원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한다(Martin, 1988). Newcomb(1963)은 대학 시절 다른 대학생과 유사하게 정치적 신념을 바꾼 태도 변화는 25년 후까지도 유지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들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현적 편견태도 반응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다른 사람의 태도표명에 따른 일시적 동조 이상의 진정한 태도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지금까지의 동조나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나은영, 1995, Stangor et al., 2001)들이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편견적 태도가 편견표현에 대한 허용규범의 지각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내집단의 규범정보를 접하는 것이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켜 외현적 편견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현적 편견태도(IAT 효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내집단 규범 정보는 편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규범 지각에 의해 매개되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규범정보를 접하는 것이 '규범적 태도에 대한 지각'과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의 매개효과가 혼입(confounding)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randall 등(2002)에 따르면 편견 반응의 정도는 그 사회의 규범이 편견 표현을 얼마나 허용한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편견반응은 더욱 높지만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편견반응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의 정당성을 그 사회의 규범이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이 편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실상 비편견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편견집단에 대해서는 심지어 더 높은 편견표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모든 편견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정당성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편견의 감소나 해소 역시 이러한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규범정보에 따라서 편견 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단과 규범정보 간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규범정보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평등 규범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편견 표현을 적게 허용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반면에 차별 규범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편견 표현을 더 많이 허용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이 완전히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편견 표현을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이 편견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로서 사회 전체의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 대해서만 물었고, 내집단의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결과로 추측이 된다. 또 하나는 앞서 지적과 마찬가지로 편견표현 허용규범을 이루고 있는 '편견표현에 관한 규범지각'과 '편견태도에 관한 규범지각'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편견표현 허용에 관한 규범지각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편견 대상에 대해 편견적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표현에 관한 규범(예컨대, 여성에 대해 편견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과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편견의 정도에 대한 지각에 바탕을 둔 태도규범(예컨대, 우리 집단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적게 갖고 있구나!)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을 좀더 세분화하여 편견표현에 관한 규범지각과 편견태도에 관한 규범지각을 측정하는 종속측정치를 도입하여 편견감소에 미치는 집단 규범정보의 영향을 보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연구가 제안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지 내·외집단 규범정보의 조작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규범정보 즉, 남녀 비율이 같은 상황에서 규범정보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규범정보의 영향도 집단마다 매우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의 동일시 정도나 동질성에 따른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어떤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유사한 가치나 태도를 지닌 타인의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범정보의 영향은 우리나라 지역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유지와 변화에 이러한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합의 규범정보를 피드백 형식으로 제시하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규범정보를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실험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실험자가 제시하는 규범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실험 참여자 직접 게시판의 글을 통해 규범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이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연구에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인터넷이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토론이 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여중생 사망사건이나 촛불 집회 등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의견 교환으로 인한 반미 태도가 고조된 바 있고,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토론이 네티즌과 젊은이들의 투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 상에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 사이트라든지 혐기 사이트, 안티 사이트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인터넷에서 제시된 규범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표현규범의 통제적 기능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공간통념 수용 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 상담연구, 10, 87-105.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심리학에서

- 본 지역감정(pp. 123-169). 서울 : 성원사.
- 나은영 (1995).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2), 69-83.
- 나은영, 권준모(2002).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51-74.
- 안상수, 최광선 (2001). 지역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 억제 효과. 2001 한국 사회 및 성격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72.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llen, V. L., & Willder, D. A. (1980). Impact of group consensus and social support on stimulus meaning : Mediation of conformity by cognitive restructu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16-1124.
- Asch, S. E.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 Prentive-Hall.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 Pergamon.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e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 Blair, I. V., & Banaji, M.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lanchard, F. A., Crandall, C. S., Brigham, J. C., & Vaughan, L. A. (1994). Condemning and condoning racism : A social context approach to interracial set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993-997.
- Blanchard, F. A., Lilly, T., & Vaughan, L. A. (1991). Reducing the expression of racial prejudice. *Psychological Science*, 2, 101-105.
- Case, C. E., & Greeley, A. W. (1990). Attitudes toward racial equality. *Humbold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16, 67-94.
- Crandall, C. S., Eshleman, A., & O'Brien, L. O.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prejudice :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59-378.
- Devine, J.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ovidio, J. F., & Gaertner, S. L. (1991). Changes in the expression and assessment of racial prejudice. In H. J. Knopke, R. J. Norrell, & R. W. Rogers (Eds.), *Opening doors : Perspectives on race relations in contemporary America* (pp. 119-148). Tuscaloos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ke, S. T., Cuddy, A.,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Gaertner, S. L., & Dovidio, J. E.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61-89). New York : Academic Press.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Hamilton, D. L., & Gifford, R. K. (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slam, S. A., Oakes, P. J., McGarty, C., Turner, J. C., Reynolds, K. J., & Eggins, R. A. (1996). Stereotyping and social influence : The mediation of stereotype applicability and sharedness by the view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369-397.
- Hewstone, M., & Brown, R. J. (1986).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London : Basil Blackwell.
- Kawakami, K., Dovidio, J. F., Moll, J., Hermsen, S., & Russin, A. (2000). Just say no(to stereotyping) : Effects of training in the negation of stereotypic association on stereotype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871-888.
- Kenny, D. A. (2001). <http://users.rcn.com/dakenny/mediate.htm>
- Lowery, B. S., Hardin, C. D., & Sinclair, S. (2001). Social influence effects on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42-855.
- Martin, R. (1988). Ingroup and outgroup minorities : Differential impact upon public and private respons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9-52.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91-125). New York : Academic Press.
- Monteith, M. J. (1993). Self-regulation of stereotypical responses : Implication for progress in prejudice re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69-485.
- Moskowitz, G. B., Gollwitzer, P. M., Wasel, W., & Schaal, B. (1999). Preconscious control of stereotype activation through chronic egalitarian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67-184.
-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 Attitude formation in a student community. New York : Dryden.
- Nosek, B. A., Banaji, M. R., & Greenwald, A. G. (2002). Math = male, me = female, therefore math $\neq$ 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44-59.
- Plant, E. A., & Devine, P. G. (1998).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11-832.
- Schaller, M., & Conway, L. G. (1999). Influence of impression-management goals on the emerging contents of group stereotypes : Support for a social-evolutionary proc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819-833.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P. A. Katz & D. A. Taylor (Eds.) *Eliminating racism : Profiles in controversy* (pp. 53-84). New York : Plenum Press.
- Sechrist, G. B., & Stangor, C. (2001). Perceived consensus influences intergroup behavior and stereotype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45-654.
- Sher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 Harper.
- Sherif, M., & Sherif, C. W. (1953). *Group in harmony*

- and tension*. New York : Harper.
- Smith, A. W. (1985). Cohorts, education, and the evolution of tolerance. *Social Science Research*, 14, 205-225.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angor, C., & Jost, J. T. (2001). Changing racial beliefs by providing consensus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486-496.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 IL : Nelson-Ha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 Blakwell.
- Wittenbrink, B., & Henly, J. R. (1996). Creating social reality :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and content of stereotypic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598-610.

The Effects of the Ingroup and Outgroup Norms on the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Women

Sang-Su Ahn and Hai-Sook Kim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test the effect of information of the ingroup and the outgroup norms on sexism. Norms(a norm advocating the equal rights for women/a norm advocating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group(ingroup /outgroup) of the participants were manipulated by presenting the arguments regarding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women on the internet homepage board.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attitude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policy and the IAT effect. The mean of control group was subtracted from the means obtained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o be used as the primary dependent measures. Participants in the ingroup-equal norm conditio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 regarding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than those in the ingroup-unequal norm conditio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AT effects suggested that male participants in the ingroup-equal norm condition showed significantly less prejudiced attitude than those in the ingroup-unequal norm condition.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 the information of group norm of the ingroup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outgroup affected the explicit attitudes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in which the perception of the ingroup norm led to the perception of the norm of the society regarding the expression of prejudice. However, this mediation effect was not found for the implicit attitude measure.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m, prejudice, in-outgroup, sexism, affirmative action, implicit attitude, IAT

원고접수 : 2003년 10월 22일

심사통과 : 2003년 11월 22일